

이후 도시를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녹색도시, 환경도시, 생태도시, 생태공학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또는 에코폴리스 등의 용어들로 혼용되어 왔다(이창우, 2008).

생태도시계획 이론과 실천은 주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유럽중심의 소규모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의 생태都市는 자연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관리를 강조하는 환경중심주의적 접근으로 계획되었다. 현대에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함께 자연의 보전뿐만 아닌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활기,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생태도시론은 도시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그 개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시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와 이론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